中서 부처님 두정골 안치 사리탑 발견

라이브사이언스 "1000년 전 것으로 추정"

부처님 두정골(頭頂骨)을 안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리탑이 발견돼 주목을 받고 있다.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은 6월 30일 "조사팀들이 중국 난징 지역에 있는 불교 사원 지하실에서 10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황금 상자를 발견했다. 황금 상자 안에는 사리탑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사리탑은 높이 117㎝, 너비 45㎝로 중간에는 철제 상자가 보관돼 있다. 재질은 백단향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금 · 은 · 수정 · 청금석 등과 함께 화려한 연꽃무늬와 봉황새 등 장식으로 꾸며졌다. 또한 불사를 위해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다.

상자에는 '더밍'이란 이름의 1000년 전 인물이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도 발견됐다.

더밍은 "히란야바티강가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 다비식을 진행했으며 아소카왕은 사리를 8만4000개로 나누었는데 그 중 19개가 중국으로 건너왔다"며 "진종 황제 지시에 따라 19개 부처님 진신사리를 보관해오던 중국 창간사가 1400년 전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 소실됐다.



중국 난징 지역 한 사원서 사리탑이 들어있는 1000년 전 황금상자가 발견됐다. 연구진은 2008년 발굴된 부처님 두정골 사리가 이 사리탑 안에 보관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밍'이 새긴 문구 토대로
제작년도 · 보관장소 추정
보관된 19개 진신사리 중
"두정골 사리 있었을 것"

하지만 이 사리탑은 잘 모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들은 발견된 유물이 중국 북송 진종(997~1022) 황제 때 제작돼 중국 창간사서 보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문구에 따라 밝혀진 제작 년도와 보관 장소를 토대로, 2008년 창간(長干)사 지하궁에서 발굴돼 난징박물관서 보관 중인 두정골이 이 사리탑에 보관돼 있었을 가능성을 나타냈다. 2008년 7월 난징 대보은(大報恩)사 유적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비각에 '북송(北宋) 진종(眞宗) 4년(1011년)에 창간사를 중건하면서 지하궁을 만들어 아소카왕탑을 제작, 안치했으며 이 탑 안에 부처의 두정골 사리와 감응사리, 제성사리 등을 모셨다'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아울러 연구진들은 이 두정골이 북송 초기 3대 고승으로 알려진 시호(施護) 스님이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리탑은 높이 117㎝, 너비 45㎝로, 백단향나무로 만들어졌다.

사진출처=라이브 사이언스 닷컴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은 "당시 두정골이 발견 됐을 때 해외 언론에는 많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불교문화권 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불자가 두정골 사리를 보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미얀마 불교도, 이슬람 사원 불 질러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 갈수록 극심해

전 세계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테러 공격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반면, 불교도 국가인 미얀마에선 이슬람 사원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7월 2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1일 북부 카친주(州) 파칸트의 론킨 마을서 불교도 150여 명이 이슬람 사원의 기도실을 파손하고 불을 질렀다. 또 사원 밖에 모인 500여 명의 불교도들은 경비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사원을 파괴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불을 끄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의 진입을 막거나 경찰관을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 한 명도 검거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바고 주(州)에서 불교도들이 이슬람 사원을 습격, 이슬람교도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벌어졌다.

바고주 투에 타 메인 마을에서는 지난 6월 23일 200여 명의 불교도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 소동을 벌였다. 이 과정서 사원 건물 일부와 공동묘지 울타리 등이 훼손됐지만 당시에도 미얀마 정부는 이 사건을 수수방관했다.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은 정식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방글라데시계 불법 이민자인 '벵갈리'로 불리며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2012년 불교도와 무슬림 간 집단 폭력사건으로 200여 명이 사망한 후엔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졌다.



미얀마서 불교도 150여 명이 이슬람 사원을 파손하고 불을 질렀다. 사진출처=로이터통신

이 사건 이후 로힝야족은 차별과 폭력을 피해 태국 등 인근 국가로 피난하며 '보트피플' 신세가 되기도 했고, 일부는 난민캠프에 수용돼 기본권을 제약당한 채 살고 있다.

지난해 총선을 통해 집권한 아웅산 수치도 소수민족 간 분쟁 해소를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유독 로힝야족 문제만은 외면해왔다. 수치는 최근 로힝야족이라는 명칭 자체가 국가 화합을 저해한다면서, 현지 주재 외국공관 등에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웅산 수치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첫 현지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 이양희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도 미얀마 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양희 보고관은 "이슬람에 대한 탄압을 수수방관하는 정부 태도는 분명 잘못됐다. 정부는 소수민족, 소수종교를 상대로 한 폭력을 조장하거나 실행하는 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형 객원기자

대만 용산사, 3D 기술로 영원히 보존된다

비영리단체 'CyArk'와 손잡고 디지털화… 가상현실 구성

대만 루깡 지역 용산사가 3D 가상현실 공간으로 재구성됐다. 스모그와 지진 피해로 인한 훼손을 우려한 용산사가 최첨단 디지털 스캐닝 기술을 이용, 사원 모습을 3D 기술로 기록한 것이다.

건축 전문 블로그 매체 'Curbed' 7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용산사는 끝없는 스모그 피해와 함께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탓에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용산사는 수년 간 보존법을 모색해오다 비영리단체 'CyArk'와 손잡고 용산사 전체의 모습을 디지털화해 전례 없는 가상현실을 구성했다.

CyArk는 지난 3월 (주)Iron Mountain 후원을 받아 3D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했다. 13년간 개발해 온 최첨단 스캐닝 기술을 활용, 중국과학기술대학과 협업해 약 893㎡ 규모의 사찰을 3D로 재구성했다.

현재 이 3D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전 세계인들은 온라인상에서 용산사 투어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Curbed'는 "이 디지털 기록은 후손들이 사찰을 유지 · 복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로스 데이비슨(Ross Davison) CyArk 매니저는 "앞으로는 사찰에 어떤 재난이 닥쳐도 3D 환경을 통해 용산사 모습을 볼 수 있다"며 "22세기 후손들에겐 말 그대로 용산사의 과거 모습으로 여행이 가능하게 된 셈"이라 설명했다.

최첨단 스캐닝 기술 이용
사원 전체 3D로 만들어
온라인상 투어 가능해져



대만 용산사와 비영리단체 CyArk는 지난 3월부터 용산사 3D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완성된 '디지털 용산사' 모습은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 사진출처=Curbed

루깡 용산사는 5,000㎡ 규모로, 18세기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름다운 건축양식과 조형물 등으로 인해 대만 불교도들에게 관음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천장 장식과 용 조각상 등으로 매우 유명하다. 1983년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한편 CyArk는 2003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서 바미얀 불상을 파괴한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비영리단체다.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 사진측정지도 제작술 등을 이용해 전 세계 유산들을 디지털로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마지막 펑라이 목조불상, 대여 중단"

대만 청수조사 사원, 7월 4일부터 시행

1937년부터 지역 사찰들에 목조불상을 대여해줬던 청수조사(淸水祖師) 사원이 대여정책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TAIPEI TIMES'는 "단수이 지역과 완화 지역 2곳의 청수조사 사원이 대만서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으로 추정되는 '펑라이 목조불상'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불상 대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며 "이 방침은 7월 4일부터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리 짠쭝(Lee Tsung-tsan) 청수조사 사원 부운영위원장은 "펑라이 목조불상 대여일수가 한 달에 20일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사원 신도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특히 지난 3월엔 다른 사찰로 옮겨지는 도중 불상에 금이 갔다. 이후 불상보호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부위원장에 따르면 펑라이 목조불상은 100여년 전 중국서 약 7~8개 제작됐다. 그 중 몇 개가 대만으로 옮겨졌지만 청수조사 사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외엔 행적이 불분명하다. 중국에 남아있던 나머지 불상마저 문화혁명 기간 동안 모두 파괴돼 펑라이 목조불상의 희소성과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리 짠쭝 부위원장은 "현재 이 곳서 보관 중인 불상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우리 사원이 이 목조불상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할 의무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펑라이 목조불상. 사진출처 kashmirhuang.blogspot

박아름 기자

